신중년의 경제활동 실태와 향후 과제[1)]

The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the New Middle-aged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이아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2019년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신중년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봤다. 그 결과, 신중년은 성별 및 연령대에 관계없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호한 건강 수준과 높은 교육 수준을 기반으로 경제적 안정과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더 오래 현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취업 기회와 선택의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과 노인의 가교로서 신중년의 일자리와 경제활동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이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신중년의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신중년에게 '일'이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건강 및 교육 수준이 높다는 점(남경아, 2017: 황남희 외, 2019에서 재인용)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할 능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기대수명이 점차 길어짐에 따른 부모 부양과 갈수록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자녀 세대에 대한 돌봄의 이중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김유경, 2019)에서 경제활동의 필요성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을 활용하여 경제 및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년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

1) 이 글은 황남희 외(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에 수록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면에서 신중년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그 파급력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가 저성장기에 진입함에 따라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신중년은 한창 일할 나이에 조기 퇴직 및 비자발적 퇴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기대수명 연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정년 및 각종 관련 제도들은 여전히 이들 부모 세대 기준에 맞춰져 있어 조기 퇴직은 물론 정상적인 퇴직 후에도 금전적·사회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신중년'이라는 용어가 2017년 8월 정부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이들에 관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였다. 젊은층과 고령층의 중간 연결고리로서 신중년층의 일자리와 경제활동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 청년과 노인 양극단의 계층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신중년층이 튼튼하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건강하고 내실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중년의 노동시장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2019년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신중년의 경제활동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중년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과 현재 일자리 특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의 근로활동 참여 욕구를 살펴봤다. 이와 함께 10년 전 50대와 현재 50대의 변화 특성을 살펴봤다.[2)]

2. 신중년의 일자리 특성

신중년의 95%는 소득을 목적으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남성(99.3%)은 근로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의 경우 여성 또한 생애 근로 경험이 약 90.9%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에서 남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으나 본 조사 대상인 신중년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 또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의 현재 근로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81.4%가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고, 18.6%는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신중년 10명 중 8명은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비율은 낮아지나 60대 후반에도 70% 이상이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6.4%는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과 동일 혹은 유사한 종류의 일을 하는 반면, 15.0%는 가장 오랫

2) 황남희 외(2019)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의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의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은 46~59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은 50~69세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교 분석을 위해 분석 대상을 50대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생애 근로 경험 및 현재 근로활동 비율

(단위: %)

구분		생애 근로 경험 비율	현재 근로활동 비율	생애 주된 일자리와 다른 종류의 일	생애 주된 일자리와 동일/유사한 종류
전체		95.0	81.4	15.0	66.4
성별	남성	99.3	87.9	18.7	69.2
	여성	90.9	74.5	11.0	63.5
연령	50~54세	96.7	87.9	12.8	75.1
	55~59세	95.9	82.4	13.7	68.7
	60~64세	93.3	78.5	17.3	61.2
	65~69세	92.3	71.0	19.1	51.9

주: 50~69세 신중년 40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생애 근로 경험이 있는 3807명을 대상으로 현재 근로활동 여부를 분석함.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122 〈표 6-1〉, p. 140 〈표 6-11〉 재구성.

동안 했던 일과는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애 근로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신중년들이 가장 오래 일했던 일자리의 특성과 현재 일자리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생애 주된 일자리[3] 직종은 서비스 종사자가 25.8%로 가장 많고 판매 종사자 22.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2%, 사무 종사자 13.2%, 단순노무 종사자 5.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5%, 관리자 3.9%, 군인 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현재 일자리 직종을 살펴보면, 서비스 종사자 29.5%, 판매 종사자 24.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2%, 단순노무 종사자 8.3%, 사무 종사자 7.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6%, 관리자 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애 주된 일자리 직종과 현재 일자리 직종의 분포 변화를 비교하면, 서비스직(25.8% → 29.5%)과 단순 노무직(5.8% → 8.3%) 그리고 판매직(22.2% → 24.4%) 비율이 증가한 반면, 사무직(13.2% → 7.9%)과 기능원·관련 기능 종사직(15.2% → 13.2%), 전문가 및 관리자(8.4% → 7.0%) 비율은 감소하였다. 전문가 및 관리자 등 고위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낮은 반면 서비스·판매직 및 단순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단순직 종사자의 비율은 높으며, 이러한 특징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현재 일자리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더욱 뚜렷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신중년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단독자영업자의 비율이 각각 38.9%, 37.7%로 높게 나타났다. 생애 주된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변화를 살펴보면, 단독자영업자 비율이 37.7%

3) 이 글에서의 생애 주된 일(자리)는 가장 오래 했던 일(자리)을 의미한다.

표 2. 생애 주된 일자리 및 현재 일자리 직종

(단위: %)

구분	서비스	판매	기능원·관련 기능	사무	단순 노무	장치·기계 조작·조립	농림어업 숙련	전문가	관리자	군인	계
생애 주된 일자리	25.8	22.2	15.2	13.2	5.8	4.7	4.5	4.5	3.9	0.1	100.0
현재 일자리	29.5	24.4	13.2	7.9	8.3	4.2	5.5	3.6	3.4	0.0	100.0

주: 50~69세 신중년 4006명 중 생애 주된 일자리 경험이 있는 38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123 〈표 6-2〉, p. 141 〈표 6-12〉 재구성.

표 3. 생애 주된 일자리 및 현재 일자리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단독자영업	무급가족	계
생애 주된 일자리	38.9	6.4	3.9	8.4	37.7	4.7	100.0
현재 일자리	27.0	8.1	4.2	9.5	46.0	5.2	100.0

주: 50~69세 신중년 4006명 중 생애 주된 일자리 경험이 있는 38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126 〈표 6-3〉, p. 144 〈표 6-13〉 재구성.

표 4.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단위: %)

구분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 부진, 조업 중단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년퇴직	그만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의 휴업, 폐업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기타	계
전체	21.9	17.7	12.2	11.2	10.4	10.2	7.5	2.1	6.8	100.0

주: 50~69세 신중년 4006명 중 생애 주된 일자리 경험이 있는 3807명 가운데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140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131 〈표 6-6〉 재구성.

에서 46.0%, 임시·일용 근로자 비율이 10.3%에서 12.3%로 증가하였으며, 상용 근로자 비율이 38.9%에서 27.0%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현재 경제활동 중인 신중년은 60.7%가 비임금근로자로 이 중 고용원이 없는 단독자영업자가 46.0%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들이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신중년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단순 서비스·판매 및 노무직과 단독자영업 및 임시·일용직이 경제활동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이 참여 가능한 영역의 범위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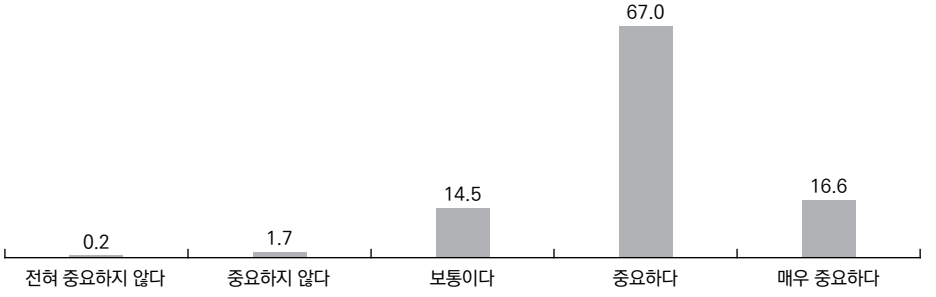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에 관해 좀 더 살펴보면, 일을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50.5세로 나타났다. 이들이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일거리가 없어서(사업 부진, 조업 중단 포함)'가 21.9%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17.7%), '정년퇴직'(12.2%),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11.2%),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10.4%), '가족을 돌보기 위해'(10.2%), '직장의 휴업, 폐업'(7.5%) 순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또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일자리를 그만둔 비율은 2.1%에 불과하다. 신중년의 절반이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및 조업 중단', '정년퇴직·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 '직장의 휴업 및 폐업' 등과 같은 사유로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신중년의 일자리 참여 욕구

신중년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일자리 참여 욕구를 살펴봤다. 노후 삶에서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신중년의 83.6%(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가 노후 경제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구체적으로 신중년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살펴보기 위해 파트타임과 전일제 일자리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일자리 참여 의향을 살펴봤다. 우선 1주일 2~3회, 1일 4시간 정도 일하면서 한 달에 약 50만 원의 소득을 받는 일자리(예: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및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정부 지원 일자리, 지역사회 환경 개선,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 지원,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활동 단순 지원 등)에 대해 기회가 있을 경우 근로를 희망하는지 살펴본 결과, 신중년의 약 48.3%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주일 4~5회, 1일 8시간 가까이 일하면서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일자리에 대해 기회가 있을 경우 근로를 희망하는지 살펴본 결과, 신중년의 약 58.3%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일제

그림 1. 노후 삶에서 근로활동의 중요도



주: 50~69세 신중년 40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158 〈표 6-20〉 재구성.

표 5. 일자리 유형별 근로 참여 의향

(단위: %)

구분		참여 의향	
		1주일 2~3회, 1일 4시간 정도 일하며 월 약 50만 원 (파트타임 유형)	1주일 4~5회, 1일 8시간 가까이 일하며 월 150만 원 이상 (전일제 유형)
전체		48.3	58.3
성별	남성	43.5	64.3
	여성	53.0	52.5
연령	50~54세	45.6	62.7
	55~59세	47.7	60.3
	60~64세	50.7	56.1
	65~69세	51.4	49.3

주: 50~69세 신중년 40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157 〈표 6-19〉 재구성.

표 6. 근로활동 지속 희망 연령

(단위: 세, %)

평균 연령	분포					
	60세 미만	60~65세 미만	65~70세 미만	70~75세 미만	75세 이상	계
69.2	1.4	10	28.6	38.6	2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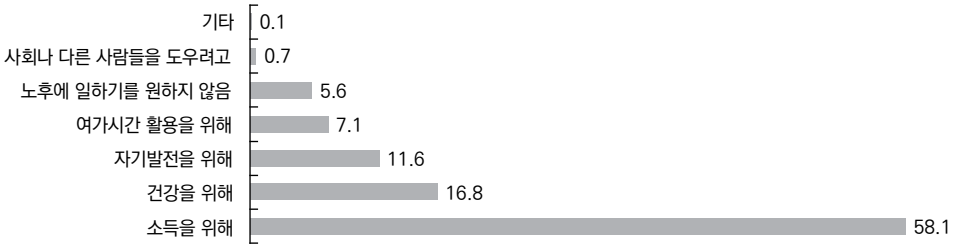
주: 50~69세 신중년 4006명 중 현재 근로활동에 참여 중인 31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153 〈표 6-17〉 재구성.

일자리에 대한 참여 의향이 파트타임 일자리 참여 의향보다 조금 더 높다. 그러나 성별 및 연령 특성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에는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현재 근로활동에 참여 중인 신중년을 대상으로 근로활동 지속 희망 연령을 살펴본 결과, 신중년은 평균 69.2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세 이상까지도 일자리 지속을 희망하는 비율이 59.9%로 절반이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후 근로활동 희망 이유를 살펴보면, 신중년의 과반수인 58.1%가 소득을 위해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중년이 늦은 나이까지 근로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로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신중년의 3분의 1이 넘는 36.2%는 건강을 위해(16.8%), 자기 발전을 위해(11.6%),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7.1%), 사회나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0.7%) 노후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실현, 사회공헌, 삶의 보람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비율 또한 30%가 넘으므로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그림 2. 노후 근로활동 희망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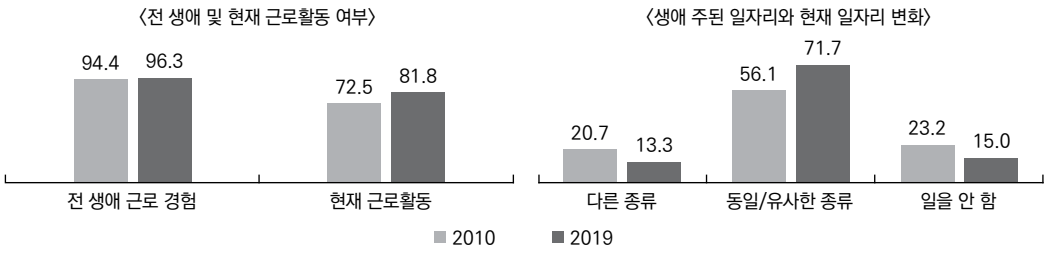
주: 50~69세 신중년 4006명 중 현재 근로활동에 참여 중인 31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154 〈표 6-18〉 재구성.

4. 50대의 경제활동 실태 변화

2010년 50대와 현재(2019년) 50대의 경제활동 특성 및 관련 인식 변화를 분석하여 10년간 이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해 변화된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신중년인 50대의 전 생애 근로활동 참여 경험(94.4% → 96.3%)과 현재 근로활동 참여(72.5 → 81.8%) 비율 모두 2010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생애 주된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현재 생애 주된 일자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50대 비율(56.1% → 71.7%)은 증가한 반면, 생애 주된 일자리와 다른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비율(20.7% → 13.3%)은 감소하였다.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고 현재 일을 하지 않는 비율도 23.2%에서 15.0%로 감소하였다.

그림 3. 50대의 경제활동 특성 변화(2010년,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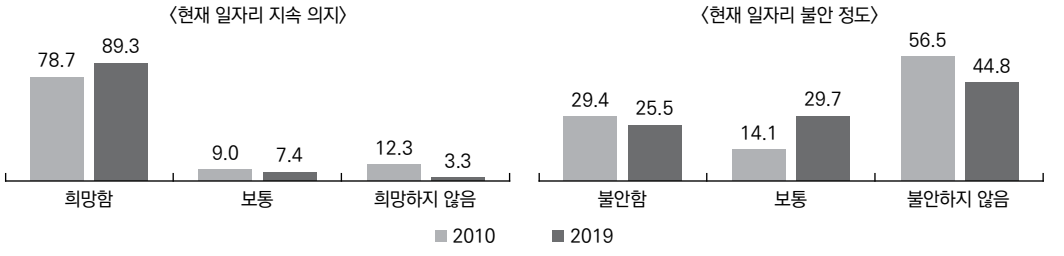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1)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p. 281-282 [그림 9-7], [그림 9-8].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

그림 4. 현재 일자리 지속 의지 및 불안 정도

(단위: %)



주: 1) 현재 일자리 지속 의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은지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이며, 희망함(매우 그렇다+그렇다), 희망하지 않음(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임.
2) 현재 일자리 불안 정도는 현재 일자리에서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한 정도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이며. 불안함(매우 그렇다+그렇다), 불안하지 않음(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임.

자료: 1)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284 [그림 9-9].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중년(50대)의 평소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2019년 신중년 50대의 89.3%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함으로써 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과거(2010년 78.7%)에 비해 매우 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업에 대한 불안감 정도를 살펴보면, 현업에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이 2010년 29.4%에서 2019년 25.5%로 감소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현재 일자리 유지에 대한 불안 정도는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업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비율은 2010년 56.5%에서 2019년 44.8%로 감소하였다. 즉 현재의 50대는 과거에 비해 현업 지속 의지가 강하나, 현업에 대한 불안 정도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중년의 약 85%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대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경우에 대비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는 2010년 14.7%에서 2019년 14.8%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5.0% 수준으로 높지 않다. 이를 통해 신중년이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후에 대한 준비가 여전히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의 일을 준비하는 경우 준비 내용 측면에서는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업 준비(4.8% → 2.5%), 직업교육 참여(1.8% → 1.3%), 구직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1.7% → 1.2%) 비율은 감소한 반면 취미·여가 개발(6.0% → 9.6%) 비율은 증가하였다.

표 7. 제2의 일을 위한 준비

(단위: %)

	준비하고 있지 않음	취미·여가 개발	창업 준비	직업교육 참여	구직 위한 네트워크 관리	기타	계
2010년	85.3	6.0	4.8	1.8	1.7	0.4	100.0
2019년	85.1	9.6	2.5	1.3	1.2	0.2	100.0

자료: 1)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p. 285 [그림 9-10].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

5. 나가며

신중년의 대부분은 근로활동을 경험하였으며, 현재도 신중년 10명 중 8명은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성별 및 연령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들은 과거에 비해 강한 현업 지속 의지를 보일 뿐 아니라 노후 삶에 경제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금의 신중년은 건강한 신체와 높은 교육 수준을 기반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더 오래 현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일자리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단순 서비스·판매 및 노무직과 단독자영업 및 임시·일용직이 경제활동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현재 일자리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더욱 뚜렷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신중년의 생애 주된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분석을 통해 신중년의 취업 기회와 선택의 폭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중년 일자리 정책은 주로 신중년의 근로 능력 개발 및 기술 전수를 통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황남희 외, 2019).[4] 하지만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역량 강화 지원 정책은 실제 취업으로까지 이어지는 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극소수만이 취업에 성공하는 해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심지어 재취업이 절실한 다수의 신중년은 근로 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황남희 외, 2019). 인구고령화와 경제 및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신중년은 자아실현, 사회공헌, 삶의 보람을 이유

4) 우리나라 신중년 일자리 정책은 Back to Work 50+[미국은퇴자협회(America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에서 50세 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취업훈련을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와 Tandem 50plus(스위스 지방자치단체에서 50세 이상에게 직업교육, 취업,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와 같은 재취업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별화된 욕구에 맞춰 근로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양지훈, 권미애, 2018; 황남희 외, 2019에서 재인용).

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30%가 넘으므로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단순하고 일회적인 성격의 일자리나 생계형 일자리 창출에서 나아가 특수한 기술과 지식, 이들의 노하우, 과거 경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신중년의 약 절반이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 부진 및 조업 중단', '정년퇴직·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 '직장의 휴업 및 폐업' 등과 같은 사유로 생애 주된 일자리를 이른 나이에 그만두고 있다. 그럼에도 제2의 일을 위해 준비를 하는 경우는 15% 수준으로 높지 않다. 이는 변화된 일자리 개념과 노동시장 상황을 인지해 신중년이 퇴직 전 본인의 경력 경로를 사전에 준비하고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경력 개발,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신중년층의 경우 당연히 일하고 있고 그 일자리 역시 좋은 일자리일 것이라는 전제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집단이다. 하지만 그러한 전제가 옳지 않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젊은층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집단이 부실해지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당 집단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며,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유경. (2019).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71호, 74-91.

남경아. (2017). 50플러스세대. 서울: 서울연구원.

양지훈, 권미애. (2018).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